

뷰티산업의 DX에 따른 재교육 체계 구축 방안

연성대학교 뷰티스타일리스트과 스킨케어 전공

유선희

요약

1.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교육 네트워크 활성화

인구 고령화 진행은 다양한 사회적 경제적 변화를 가져오면서 타 지역에 비해 빠르게 진행하고 있는 아시아 국가에서는 고령화로 인한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하고 있으며,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데 미국은 88년, 독일은 77년, 일본은 35년이 걸린 것에 비해 한국은 불과 25년 정도밖에 걸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는 전체 국가 중 한국이 고령사회로의 진입이 가장 빠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최근,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뷰티관련 종목에 대한 수험자 동향에 의하면, 채용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뷰티관련 미용자격증 응시자의 경우, 필기와 실기시험을 모두 합격해야지만 자격을 취득할 수 있음에도 50대~60대의 응시자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며, 이는 자격증 취득 후 뷰티산업에서의 경제활동을 할 것으로 의미하고 있다. 하지만 뷰티산업은 기술 발전과 새로운 기술이 도입되면서, 트렌드에 맞는 새로운 기술을 지속적으로 습득해야하기 때문에 중·고령층의 활발한 사회활동 참여와 역량 개발을 위해 뷰티산업에서의 꾸준하고 지속적인 재교육의 활성화가 매우 중요한 실정이다.

2. 디지털 전환 시대, 뷰티 교육의 재교육 필요성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로 인해 세계 각국은 디지털 기술 경쟁력을 갖추고자 선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략으로 「디지털 인재양성 종합방안」을 발표하였고, 뷰티산업에서도 디지털 기술 경쟁력과 융합적 사고를 가진 인적자원개발을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가 매우 중요하다. 현재 선행연구들을 통해 뷰티산업에서의 가장 큰 문제점은 취업 후 근무의 부적응으로 재직자들의 이직률과 퇴사와 같은 장기적은 문제를 이해하고, 다루어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3. 뷰티분야의 재교육과정 현황 및 한계점

대학과 교육기관의 과정 이수 후 진로를 선택하고 직업을 얻게 되는 과정을 통해 대학과 교육기관은 이들의 자기 계발과 정체성을 확보해나가는 역할로써 작용해야 하며, 특히 학령 인구 감소와 평생교육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안정적이고 전문화된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기관으로서의 전환이 필요하다. OECD는 15세~64세의 '저숙련노동자 중 교육 참여의사는 있으나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불참 사유'를 ▲(개인 사유)시간 부족 ▲(일 때문에)시간 부족 ▲비용 부담 ▲진입장벽 때문에 등의 4가지 이유로 나눠 조사되었고, 대부분의 조사국의 대상자들은 '(일 때문에) 시간 부족'에서 높은 비율을 보였고, 평균은 20.1%이었으나, 우리나라는 46.9%로 OECD 조사 대상국 중 최고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OECD 조사국 중 노동시간이 긴 축에 속하는 우리나라의 현실과 일맥상통하는 측면이 있으며, 교육에 대한 개인적인 의지뿐만 아니라 근무에 대한 환경도 개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특히, 뷰티산업은 다른 서비스업에 비해 장시간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인적자원에 대한 의

존도가 높은 직업이므로 이에 따른 관리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뷰티산업의 DX에 따른 재교육과정의 교과목 편성은 산업현장 요구에 맞는 직무능력을 향상하기 위하여 산업체 전문가와 함께 산업현장에서 겪는 여러 문제 해결을 위한 지식을 습득하고, 전공별, 직급별, 연차별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뷰티산업에서 고도의 지식과 기술 중심으로 한 우수한 인재 확보는 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요소이며, 뷰티산업의 DX에 따른 인재의 필수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이라면 좀 더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특히, 뷰티산업 구조와 직무요구에 맞춰 창의·융합 인재양성 고도화를 위해 재직자 중심의 현장 맞춤형 재교육이 장기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뷰티 전공 교육과정에서 가상현실(VR)를 적용한 교육방법 개발 연구

중원대학교 뷰티케어학과

문지선

요약 : 뷰티 전공 관련 교육은 산업현장과 밀착되어 있어 시대변화의 흐름을 예측하고 비전과 방향성을 설정하고 대학 환경에서 새로운 교육으로 뷰티 전문 인재를 양성하는데 기여하는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최근 교육 환경은 과거 교사 중심의 교육에서 학습자 중심의 교육 환경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이렇게 교육 환경은 시대의 변화에 바뀌고 있다.

현재 4차 산업혁명 시대인 뷰티 산업 분야에서는 다양한 4차 산업 기술이 활용되고 있으며, 뷰티 전공 교육에서도 4차 산업 기술을 활용한 교육과정이 필요하다. 4차 산업혁명 시대는 모바일(Mobile), 사물 인터넷(Internet of things),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빅데이터(Big data) 등 첨단 정보 통신기술이 융합되며 빠르게 변화되고 있다. 뷰티 분야 역시, 소비와 교육에서 첨단 정보 통신기술 중 VR(Virtual Reality)을 이용한 인공 기술의 3차원 기반이 이용되고 있다. 이러한 입체적 교육 환경은 학습자의 몰입감을 높이는 장점이 있다. 기술의 발전은 일상생활에 다양한 변화를 가져왔으며, 진보된 기술에 교육자의 접근성이 향상됨에 따라 그 중 가상현실(Virtual Reality, VR)은 가장 크게 변화된 영역 중 하나로 4차 산업혁명시대에 중요한 기술로 인식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가상현실의 활용은 교육 현장에서도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되고, 뷰티 전공 교육과정의 교육적 연구사례 빈도는 아직 낮은 것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뷰티 전공 학습자들의 가상현실 활용 교과목 운영에 대한 기대감과 가상현실 기반 뷰티 전공 교과목 학습이 전문지식과 실무능력에 미칠 기대감을 파악한 후, 이를 접목한 4차 산업혁명 미래사회를 대비한 가상현실 활용 뷰티 전공 교과목 개발의 근거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위한 측정도구의 구성은 가상현실 기반 뷰티 전공 교과목 개발 인식에 관한 5문항(김선영, 2020), 가상현실 기반 실무능력과 전문지식 인식에 관한 7문항(김혜련, 이인희, 2014), 일반적 특성 3문항으로 선행연구들을 참고하여 재구성하였다.

본 연구는 뷰티 전공자들의 4차 산업 기술이 활용된 교과목에 대한 기대감과 4차 산업 기술 기반 뷰티 전공 교육의 실무능력과 전문지식 향상에 미칠 학습자들의 기대인식을 규명하고, 가상현실 기반 뷰티 전공 교과목 개발의 교육 환경을 마련함으로써 뷰티 전공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뷰티 전공 교과목 개발에 대한 인식의 결과로는 산업관련인식, 실무능력, 전문지식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상관관계를 나타내었으며, 가상현실 기반 뷰티 전공 교과목 개발에 대한 인식은 실무능력, 전문지식, 산업관련인식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의의는 뷰티 전공자들의 4차 산업 기술 활용 교과목 개발과 운영에 대한 인식을 파악한 것으로 시뮬레이션 교육의 교육적 효과에 대한 학습자들의 기대인식을 전공 능력의 관점에서 구체적으로 제시한 데에 있다.